

# 표준 5·18 광주민주화운동사 편찬 기본계획

2016. 10. 16.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0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409-82-11942

대표자: 송진규

책임연구원: 최정기

작성자: 심주형

목차

## I. 개요

I-1 사업개요

I-2 사업배경

I-3 사업목적

I-4 사업기조

## II. 표준사 편찬 로드맵

## III. 표준사 편찬위원회 구성안

## IV. 표준사 편찬 예상 쟁점 및 대응방안

IV-1 '표준사' 개념과 방법에 관한 문제

IV-2 '표준사 편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

IV-3 '표준사' 서술 근거 자료에 관한 문제

IV-4 '표준사' 서술 방법에 대한 문제

IV-5 '표준사' 지위와 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

V. 표준사 편찬 목차 (가안)

VI. 예상 ‘표준사 편찬위원’ 및 필진 현황

VII. 사업추진 일정

VIII.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IX. 기타 - 별첨자료

- 기존의 5·18 역사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 개요

### I-1 사업 개요

- 사업명칭: 표준 5·18 광주민주화운동사 편찬 기본계획

- 사업기간: 2017년 3월 ~ 2020년 10월

1단계: 2017. 1. ~ 2017. 12.

2단계: 2018. 1. ~ 2018. 12.

3단계: 2019. 1. ~ 2019. 12.

4단계: 2020. 1. ~ 2020. 10. [40주년 기록 포함]

- 사업비: 각 단계별 10,000,000 원 (총 4억원+)

### I-2 사업 배경

- 5·18민중항쟁(이하 5·18)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항쟁의 폭압성이나 현대사적 의미를 떠나서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집중적인 학문적 노력이 투여되어 담론의 변화가 일어났고, 역사적 정당성이 복원되었다는 점에서도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5·18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1980년 5월 이후 정부 및 각종 국가장치들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당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학적인 접근틀을 이용하여 5·18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중 보다 강조된 측면은 진실규명에 대한 관심이었으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었다.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하 5·18)’ 이후 지난 36년여 동안, 황석영(1984), 전남사회문제연구소(198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90) 등 1차적인 사료를 집대성한 자료모음집이 발간되는 등 관련 저작물들이 출간되어 그동안 정부에 의해서 5·18에 씌워졌던 왜곡된 이미지들, 예를 들면 ‘김대중 내란음모’와의 관계 속에서 항쟁이 발생했다든가, 항쟁의 주역들은 불순분자이거나 폭도라든가, 나아가 폭도들이 광주시민들을 살상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전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조작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 그러나 여러 연구 성과들과 자료 및 출판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공식/비공식 역사기술들로 재현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표준적’ 사실관계와 해석에 따른 역사관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편찬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 5·18기록관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과 함께 5·18에 대한 서술 및

‘표준적’ 역사로의 편찬사업이 필요하다. 물론 5·18에 대한 역사적 정리 및 편찬 사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료의 한계와 함께 개인적인 작업의 결과로서 표준사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 이러한 조건에서, 상당수의 5·18 관련 저작물들이 파편화된 기록에 대한 제한된 접근에 기반 하거나, 2차 혹은 3차 저작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과 특정 인물, 사건들의 의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고, 전체적 역사에 대한 이해를 무시한 부분 발췌와 정치적 해석에 기반 해 5·18 역사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5·18 40주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변화한 세대경험과 미디어 환경(인터넷 등)은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s)’에 대한 해석과 정보유통의 다중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 한 역사 왜곡이 ‘5·18’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조작하려는 시도들로 전화해 가는 추세이다.

- 5·18 의 역사에 대한 왜곡과 정치화시도들은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파편화 되거나 혹은 탈맥락화된 자료와 기록의 악의적 전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실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5·18의 역사에 대한 국민적 기념과 추모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 또한 최근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과 우려는 5·18의 역사가 새로운 세대들의 역사의식 형성 과정에서 축소, 왜곡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표준사로서의 5·18을 서술하고, 그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 I-3 사업 목적

- ‘표준 5·18 광주민주화운동사 편찬 (이하, 표준사 편찬)’ 사업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36년여가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왜곡’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해석의 준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표준적 시각’을 제시하며, ‘5·18’ 역사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관심과 지속적 연구 가능성을 촉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지난 30여년 동안 생산되고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를 현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주요 논쟁점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표준적’ 근거들을 마련하고자 함.

- 개별화 및 파편화 되어 있는 각종 연구 성과들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맥락화 하여 상호참조 및 대조 가능성을 증대하며, 각각의 저술, 출판물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오기와 왜곡 사례들을 규명하고 바로잡고자 함.

- 미국등 해외에 산재해 있는 5·18 관련 자료 및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외국 정부 및 언론등의 역할을 5·18 역사의 일부로 포함하고자 함.

- 국·내외 저명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광주민주화 운동 표준사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역사 규명’ 작업과 관련연구 확산을 도모하며 ‘5·18’ 역사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인 ‘역사편찬’ 작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정보유통 및 습득 환경에 조응하여, 역사적 사실들과 사례들에 대한 서술과 재현의 새로운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함.

## I-4 사업 기조

- 표준사(標準史) 집필 사업은,

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해석의 기준이 되는 서술을 지향함.

②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5·18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학제적 경계를 가로지르고 대중적 이해를 고양하는 ‘표준적’ 관점을 제시하여야 함.

③ 그 서술에 있어서 확고한 ‘역사서술의 기본윤리’에 기반하여 대중적 공신력과 학문적 면밀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

예) 전미 역사학회의 “Statement on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2011 수정본)”와 같은 자체 윤리규정 설정 필요.

④ 국내외 5·18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를 통합하며 명실공히 5·18 ‘표준사’로써 그 위상을 가져야 함.

⑤ 정치적 왜곡과 논쟁의 대상이 된 현대사적 경험에 대한 ‘표준사 기술작업’으로써 5·18 참여-경험자와 연구자가 함께 소통하는 공동작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

## II. ‘표준사’ 편찬 로드맵

<p>1단계 (2017년)</p>	<p>‘표준사’ 기본 색인과 용어사전, 사건시간표(timeline) 및 5·18 역사지도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관련 연구/출판물/기록 자료 종합 분석 및 평가</li> <li>㉠ 미국 정부문서등 해외 자료 발굴 및 수집</li> <li>㉠ 시간, 장소, 사건, 인명별 기술 용어 표준화 (번역어 포함)</li> <li>㉠ 출판물, 연구성과 및 기록들을 종합하여 시간, 장소, 사건, 인물에 기반 한 ‘표준’ 역사지도 제작</li> </ul>
------------------------	---



<p>2단계 (2018년)</p>	<p>‘표준사’ 집필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사 및 권역별 표준사 집필</li> <li>㉠ 한국 현대사 및 세계사적 맥락화</li> <li>㉠ 해외지역 5·18 관련사 서술</li> <li>㉠ 5·18에 관한 주요 논쟁점에 대한 심화 역사기술</li> </ul>
------------------------	---



<p>3단계 (2019년)</p>	<p>‘표준사’ 집필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시점, 지역, 장소, 인물별 심화 역사기술 (증강-기술)</li> <li>㉠ 5·18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 및 일화 발굴</li> <li>㉠ 미국 및 정부당국의 움직임 주요인물의 활동사항 별도 서술</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사 교육 및 활용방안 제안</li> </ul>
--	--



	<p>‘표준사’ 총서 발간 (번역 포함)</p>
<p>4단계 (202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40주년에 관한 역사기술 (40주년 행사기록 포함)</li> <li>☞ 표준사 데이터베이스 (Database) 구축 및 전자책(E-book) 발간</li> <li>☞ 사업평가 및 지속적이며 열린체계로써의 5·18 역사서술을 위한 아젠다 발굴</li> </ul>

III. 표준사 편찬위원회 구성안



**표준사 편찬위원회 (7인)**

☞ 편찬위원장: 책임연구자

☞ 편찬위원:

연구/집필자 4인,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장 및 재단추천 1인,

☞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행정/기록업무

**자문위원회**

☞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 각 단계별 연구 진행과정 및 성과에 대한 자문

**연구/집필진 구성 (5인)**

☞ 책임연구자 1인: 전체 사업 총괄

☞ 연구/집필자 4인: 조사, 연구 및 표준사 집필

☞ 연구보조원 & 보조원: 전체 사업 업무보조. 산학협력단과 발주처인 5.18 기념 재단과 업무 연락 및 협조.

## 5.18 재단 및 연구소

- ☞ 상임이사 (편찬위원)
- ☞ 전임연구원 혹은 재단 추천인사 (편찬위원)
- ☞ 비전임연구원 (연구보조 및 자료협조 업무)

## IV. 표준사 편찬 예상 쟁점 및 대응방안

### IV-1 ‘표준사’ 개념에 관한 문제

- 정사(正史) 혹은 공식사 (official history)와 차별적인 개념으로서 표준사 (standard history) 개념은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 ‘표준사’는 기존의 정사 및 공식사 서술이 지닌 방법론적 폐쇄성을 지양하고, 동시대적 역사관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동작업에 의한 집단서술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표준사 집필’은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해석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바탕을 두고, 동시대적 역사인식의 기초 참고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함.

### IV-2 ‘표준사 편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

- ‘표준사 편찬위원회 (이하 편찬위)’는 정치, 사회, 역사, 인류학 연구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며, 5.18 기념재단 (이하 ‘재단’) 2인 및 외부인사 1인, 총 7인으로 구성하여 학문적 독립성을 재고하면서도 동시에 ‘5·18’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편찬위는 매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회들과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최종 결과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편찬위 회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논의 내용 자체가 사료가 될 수 있도록 함.

#### IV-3 ‘표준사’ 서술 근거 자료에 관한 문제

- 고전적인 ‘실증주의적’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문서기록물 뿐만이 아니라 증언등 다양한 시각과 다중적 목소리를 최대한 포괄하도록 함.

- 그동안 개별적 혹은 산발적으로 공개되었던 미국 정부 문서등 해외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

- 그간 ‘5·18’에 대한 역사기술들을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욕망등과 관계하는 ‘역사적 인공물(historical artifact)’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그 현재적 의의를 밝혀야 함.

- 판단이나 해석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성급한 단언이나 일반화를 배제하고, 주요 논쟁점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표준사’ 서술의 미래를 예비할 필요가 있음.

#### IV-4 ‘표준사’ 서술 방법과 관련한 문제

- 기존의 통사적 기술 혹은 특정사건/인물 중심의 서술을 지양하고, 역사적 맥락과 흐름에 유의하면서도 역사적 특이성 (historical singularity)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각 사업 단계별로 집필 과제와 서술전략을 각 집필자가 공유하며

서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집필자 개인의 성향과 관심사의 차이로 인해 서술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연구/집필자 회의 외에도, 표준사 편찬위원회 회의, 관련 학회와의 워크숍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절차등을 통해, 전체적인 역사기술의 질과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역사적 사실과 관련 정보들을 시각화 하여 전달하기 위해 인포그래픽 (Infographic)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적 이해를 고양할 필요가 있음.

- 역사서술에서 있어서 용어와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디지털화-웹 (web)기반의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통한 상호 대차대조 가능성과 서사적 연결성에 유념한 기술 전략이 필요함.

- ‘표준사’ 서술은 폐쇄성과 영속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주기적인 ‘표준사’ 업데이트가 가능한 서사구조와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5년(혹은 10년)을 주기로 정리된 내용을 출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IV-5 ‘표준사’ 지위 구축과 관리 시스템문제

- 5.18 재단 내에 ‘표준사’ 편찬사업 관련 공식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결과물을 공식화하고 제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단이 ‘표준사 편찬위원회’와 더불어 5.18 표준사에 대한 사업 전반을 관할하고 공식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표준사’ 관련 각종 대중 홍보 활동 (독후감, 역사퀴즈대회, 옴부즈맨등)

을 조직하여, ‘표준사’를 중심으로 5·18 기념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V. 표준사 편찬물 기획안 (가안)

1단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표준사 편람집

- 국내외 자료목록
- 용어편람 (국/영문)
- 5·18 타임라인
- 역사 지도

2단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통사 및 권역별 표준사

- 5·18 통사
- 국내 각 권역별 표준사
- 해외지역 표준사

3단계: 시간, 장소, 사람들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사

- 시간대별 주요 사건사
- 주요 장소별 지역사
- 정부, 군관련사
- 미국 정부등 해외 정부의 활동관련 역사 사

4단계: 총서 및 <5·18 그 후 40년> 자료집 발간.

- 5·18 표준사 총서 발간 (기존 연구 통합)
- <5·18 그 후 40년>

VI. 예상 ‘표준사 편찬위원’ 및 필진 현황

표준사 연구/집필 연구인력 후보 리스트

- 서울지역 (4인): 책임연구원(1), 연구원(3)
- 광주지역 (7인): 책임연구원(1), 연구원(6)

○ 서울지역 (4인)

책임연구원	
성명	정근식
소속	서울대학교
이메일	ksjung@snu.ac.kr
연구원	
성명	김정한
소속	고려대학교
이메일	kjunghan@hanmail.net
연구원	
성명	박찬승
소속	한양대학교
이메일	pcshistory@hanyang.ac.kr
연구원	
성명	심주형
소속	서강대학교

이메일	jhshim@sogang.ac.kr

○ 광주지역 (7인)

<b>책임연구원</b>	
성명	최정기
소속	전남대학교
전화번호	
이메일	jungeechoi@hanmail.net
<b>연구원</b>	
성명	노영기
소속	조선대학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noeyoungi@chosun.ac.kr
<b>연구원</b>	
성명	유경남
소속	5·18 기록관
이메일	ondalpo@daum.net
<b>연구원</b>	
성명	정호기
소속	전남대학교
이메일	

연구원	
성명	김희송
소속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이메일	
연구원	
성명	박경섭
소속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이메일	vomulsum@hanmail.net
연구원	
성명	안종철
소속	(전)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단장
이메일	
연구원	
성명	박경섭
소속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이메일	vomulsum@hanmail.net
연구원	
성명	안종철
소속	(전)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단장
이메일	

1단계 (2017년)









고회									
연구/집필진 2차 회의 (총서 발간준비)									
연구/집필진 3차 회의 (최종보고 점검)									
편찬위 2차 회의 (성과물 최종 검토)									
최종 결과물 납품 및 출판									

VIII.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단계 사업 (2017년)

항목	내역	단가	산출기초	금액 (천원)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3,000,000원/월	1인 x 3개월	9,000	
	연구원 1	2,400,000원/월	4인 x 3개월	28,800	
	연구원 2				
	연구원 3				
	연구원 4				
	연구보조원	1,600,000원/월	1인 x 3개월	4,800	
보조원	1,200,000원/월	1인 x 3개월	3,600		
직접비	연구활동비	700,000원/회	연구회의비 x 3 회	2,100	
		100,000원/회	연구회의 참가 교통비	2,100	

			7인 x 3회		
		1,000,000원/인	자료수집/ 복사비 4인 (연구원)	4,000	
		1,000,000원/인	조사비 4인 (연구원)	4,000	
		300,000원/회	해외 자료 조사비 3인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자료수집 경비 포함)	1,200	
		8,000,000/회	공동 워크숍 개최비 (관련학회 공동)	8,000	
		1,500,000/회	편찬위원회 회의비 2회 (7인 + 2인)	3,000	
		1,000,000원	사무/행정용품 및 비품 구입비	1,000	
	출판비	160원/1자	한-영 번역/감수비	6,000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요율 한국어 원문 1자 영문번역 최저 160원
			최종 연구성과물 출판/배포비	15,000	

소계	92,600	
일반관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		
합계		

- 2단계 사업 (2018년)

항목	내역	단가	산출기초	금액 (천원)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3,000,000원/월	1인 x 3개월	9,000	
	연구원 1	2,400,000원/월	4인 x 3개월	28,800	
	연구원 2				
	연구원 3				
	연구원 4				
	연구보조원	1,600,000원/월	1인 x 3개월	4,800	
보조원	1,200,000원/월	1인 x 3개월	3,600		
직접비	연구활동비	700,000원/회	연구회의비 x 3 회	2,100	
		100,000원/회	연구회의 참가 교통비 7인 x 3회	2,100	
		1,000,000원/인	자료수집/ 복사비 4인 (연구원)	4,000	
		1,000,000원/인	조사비 4인 (연구원)	4,000	
		300,000원/회	외부 전문가 자문비	1,200	

			4인 (집필내용 감수)		
		8,000,000/회	공동 워크숍 개최비 (관련학회 공동)	8,000	
		1,500,000/회	편찬위원회 회의비 2회 (7인 + 2인)	3,000	
		1,000,000원	사무/행정용품 및 비품 구입비	1,000	
	출판비	160원/1자	한-영 번역/감수비	6,000	한국외국어대 학교 통번역센 터 번역요율 한국어 원문 1 자 영문번역 최저 160원
			최종 연구성과물 출판/배포비	15,000	
소계				92,600	
일반관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					
합계					

- 3단계 사업 (2019년)

항목	내역	단가	산출기초	금액 (천원)	비고
----	----	----	------	------------	----

인건비	책임연구원	3,000,000원/월	1인 x 3개월	9,000	
	연구원 1	2,400,000원/월	4인 x 3개월	28,800	
	연구원 2				
	연구원 3				
	연구원 4				
	연구보조원	1,600,000원/월	1인 x 3개월	4,800	
	보조원	1,200,000원/월	1인 x 3개월	3,600	
직접비	연구활동비	700,000원/회	연구회의비 x 3 회	2,100	
		100,000원/회	연구회의 참가 교통비 7인 x 3회	2,100	
		1,000,000원/인	자료수집/ 복사비 4인 (연구원)	4,000	
		1,000,000원/인	조사비 4인 (연구원)	4,000	
		300,000원/회	외부 전문가 자문비 4인 (집필내용 감수)	1,200	
		8,000,000/회	공동 워크샵 개최비 (관련학회 공동)	8,000	
		1,500,000/회	편찬위원회 회의비 2회 (7인 + 2인)	3,000	
		1,000,000원	사무/행정용품 및 비품 구입비	1,000	

	출판비	160원/1자	한-영 번역/감수비	6,000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요율 한국어 원문 1자 영문번역 최저 160원
			최종 연구성과물 출판/배포비	15,000	
소계				92,600	
일반관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					
합계					

- 4단계 사업 (2020년)

항목	내역	단가	산출기초	금액 (천원)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3,000,000원/월	1인 x 3개월	9,000	
	연구원 1	2,400,000원/월	4인 x 3개월	28,800	
	연구원 2				
	연구원 3				
	연구원 4				
	연구보조원	1,600,000원/월	1인 x 3개월	4,800	

	<b>보조원</b>	1,200,000원/월	1인 x 3개월	3,600	
<b>직접비</b>	<b>연구활동비</b>	700,000원/회	회의비 x 3 회	2,100	
		100,000원/회	회의참가 교통비 7 인 x 3회	2,100	
		1,000,000원/인	자료수집/ 복사비 4인 (연구원)	4,000	
		1,500,000/회	편찬위원회 회의비 2회 (7인 + 2인)	3,000	
		500,000원	사무/행정용품 및 비품 구입비	500	
	<b>출판비</b>	160원/1자	한-영 번역/감수비	6,000	한국외국어대 학교 통번역 센터 번역요 율 한국어 원 문 1자 영문 번역 최저 160원
		최종 연구성과물 출판/배포비	20,000		
	<b>최종 연구성과 발표 및 보고회</b>	10,000,000/회	국내/외 관련학자 초청 연구성과 발표 및 보고 회	10,000	

소계	93,900	
일반관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		
합계		

## IX. 기타 - 별첨자료

IX-1 <기존 5·18 역사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별첨 IX-1. 기존의 5·18 역사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5·18민중항쟁 관련 기존의 통사류에 대한 검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광주 민중항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 (VI)』, 1987.

- 관련자료 미(未)명기 상태로 종합적 서술, 일지 작성 관련 자료 확인 불가.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89?), 『광주민중항쟁일지』, 미간행자료. 이것은 이후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1990)으로 발간됨

참고자료:

\* 국내일간지 - 사건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 군 관련 자료 - 계엄사 경고문, 광주진압 계엄군의 작전일지, 계엄포고령 제10호, 31사단 전투상황보고,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작전상황일지,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교훈집, 특전사 전투상황보고, 특전사 충정작전보고, 계엄사 계엄상황일지,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 20사단 전투상황보고,

\* 각종 수기

-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 윤재걸, 『광주 - 그 비극의 10일간』, 글방문고
- 윤재걸,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 자료집

-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편집부, 사계절.

\* 1980년대 후반의 언론보도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 - 국회 청문회를 담당했던 당 시  
평민당 관계자들이 청문회 자료를 종합하여 만든 자료

참고자료

\* 군 자료

- ‘계엄상황일지’, 육본 ‘작전 상황일지’, 육본 ‘소요진압과 그 교훈
- 광주사태의 종합분석’, 육본 ‘폭동진압작전’,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전교사 전투  
상보’, 전교사 ‘광주소요사태분석’, ‘31사단 전투상보’, ‘20사단 전투상보’, ‘20사단 충정  
작전 보고’, ‘20사단 충정작전 상보’, 20사단 ‘광주사태 실태보고’, ‘특전사 전투상보’,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국보위 ‘광주사태 진상조사 보고’

\* 행정기관 자료

- 전라남도 ‘광주사태 수습개요’, ‘5.18관계철’, ‘매장관계철’, ‘5.18관련자치료비 지원금  
내역’, 광주지방검찰청 ‘5.18관련 사망자 검시내용’, 총무처 자료들

\* 민화위 자료

\* 병원 자료

-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교병원, 적십자병원, 그 외 병원들의 ‘진료기록부’

\* 국회 자료

○ 『實錄5·18광주민중항쟁』, 창작시대사, 1996.

## 참고자료

\* 군 자료 - 계엄사 발표 '광주사태'(1980)

\* 민화위 및 청문회자료

- 광주사태 치유방안(민화위), 전두환 '광주'관련 국회 증언, 광주특위서 전두환에게 보낸 51개 항 질의서

\* 재판관련 자료

- 전두환 사전구속영장, 12·12 및 5·18 핵심5명 구속영장, 전·노씨 등 8명 내란 혐의 공소장(全文),

## 2) 5·18민중항쟁사에 대한 기존의 서술체계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황석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 밀려드는 역사의 파도

☞ 역량의 성숙

☞ 민중항쟁의 발단 - 14일부터 17일까지

## 피와 눈물의 5일간

3. 산발적이고 수동적인 저항

4. 적극적 공세로의 전환

5. 전면적인 민중항쟁

6. 무장투쟁과 승리의 쟁취

## 광주여!광주여!광주여!

7. 해방기간 I: 수습위 구성에서 민중언론과 선전조까지

8. 해방기간 II: 계속되는 전투에서 임전의 길, 투항의 길까지

9. 해방기간Ⅲ: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에서 왜 싸워야 하는가까지
10. 해방기간Ⅳ: 독침사건에서 지도부의 활동계획까지
11. 해방기간Ⅴ: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에서 계엄군의 전략과 공작까지
12. 항쟁의 확산: 전남지역의 항쟁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

13. 항쟁의 완성
14. 끝나지 않은 투쟁

○ 정상용 외 8인,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

### 제1부 비극의 서말

- ☞ 엇갈리는 희망과 불안
- ☞ 10·26 직후의 정치정세
- ☞ 군부의 패권투쟁
- ☞ 반역, 12·12쿠데타
- ☞ 신군부의 등장

### 제2부 안개정국

- 가. 권력을 향한 신군부의 집념
- 나. 분출하는 노동자의 힘
- 다. 변혁의 기수, 학생운동
- 라. 미몽 속의 정치권
- 마. 운명의 나흘간

### 제3부 광주항쟁

- ☞ 전야

☞ 학살

☞ 마침내 항쟁으로

☞ 해방광주

☞ 외로운 도시

☞ 최후의 항전

제4부 항쟁, 그 이후

☞ 신군부의 보복

☞ 쿠데타의 3단계

☞ 대단원, 새로운 친미군사파쇼정권의 탄생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제1부 광주 5월 민중항쟁 일지

제1장 전면적인 민중항쟁

☞ 계엄확대조치와 산발적인 학생시위

☞ 공수부대의 무차별 진압작전

☞ 일시적 소강상태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항거

☞ 민주기사들의 봉기

제2장 계엄군의 발포

☞ 차량탈취

☞ 집단발포

제3장 무장봉기

☞ 무장시민군의 등장

㉔ 계엄군의 퇴각

#### 제4장 해방기간

㉔ 수습위의 구성

㉔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㉔ 항쟁지도부의 탄생과 활동

#### 제5장 도청 함락

㉔ 최후의 항쟁

㉔ 상무대로 연행

#### 제2부 증언

㉔ 시민수습대책위원회, 학생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학생투쟁위원회

㉔ 무장조직 활동

㉔ 시민항쟁

㉔ 선전활동

㉔ 중요사건

㉔ 지방에서의 항쟁

㉔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구속자

㉔ 목격담 및 군 관계자 증언

#### 3) 기존의 통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지나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 출판된 책이 갖는 한계이지만, 폐쇄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새롭게 수집된 자료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 개인적인 연구결과이든, 집단작업의 결과이든 공식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 미국 소장 자료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5·18항쟁의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들

김정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 1. 5·18 민간인 사상자 통계

\* 민간인 사상자 통계가 자료와 문헌에 따라 다름.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간인 사망자 166명으로 보고.

“10일간의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사망자는 군인 23명, 경찰 4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166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군인 108명이었고, 민간인은 852명이다. 2007년 7월 광주시청 민주선양과에 등록되어 있는 5.18 유공자는 5,064명이며, 사망행불 318명, 부상 2,267명, 기타 희생 2,479명이다.”

\*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유공자동지회는 2005년에 전체 사망자 606명으로 발표. 항쟁 기간 사망 165명, 행방불명 65명, 상이후 사망 376명(추정).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0728](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0728)

\* 5·18기념재단의 ‘사이버추모공간’에서는 사망자를 165명으로 분석. 홈페이지의 ‘관련통계’에서는 보상 현황만 제시.

1) 조갑제는 주로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감찰부의 5·18수사보고서(1995. 7. 18)를 참조. (그러나 그의 책에는 민간인 사망자 165명과 166명의 서술이 혼재)

“서울지검의 1995년 7월 발표문에 따르면 광주사태 사망자는 193명이다. 민간인은 166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이다. 이 통계에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군경 사망자 27명이다. 요사이 여권과 일부 언론은 ‘광주학살’이란 표현을 쓰는데 군경사망자 27명이란 숫자는 ‘학살’이란 단어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학살’이란 용어는 보통 비무장의 사람들을 무장집단이 일방적으로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광주사태에선 ‘민간인 6 대 군경 1’의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학살’은 비과학적 표현이다. 군인 사망자 23명 중 12명은 상호 오인 사격에 의한 사망자로서 시민 측의 공격에 의한 순수 군경 사망자는 15명이다.//“1988년 민화위 증언에서 소준열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장은 ‘민간인 사망자의 검시 결과 군인이 사용한 M16 총탄을 죽은 시민은 45명이었다’고 말했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간인 사망자 45명 대 군경 사망자 15명’ 즉 3대1의 비율이 된다.”

“1980년 5-6월 검찰의 검시 조사서에 따르면 사망한 165명의 민간인과 경찰관 중 총격 사망이 131명, 찢려서 죽은 사람이 4명, 맞아죽은 사람이 18명, 차에 깔려 죽은 사람이 12명이었다. 총격

사망자 중 군인들이 쏜 것으로 보이는 M16 소총 실탄 피격자가 96명,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빈 소총탄에 의한 피격 사망자(군인 제외)는 26명, 기타 9명이었다. 카빈탄 피격자는 시민끼리의 오인 사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민간인 6 대 군경 1’의 비율로 사망했으니 ‘학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

\* 총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군인이 사용한 M16에 의해 사망한 수는 4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 M1과 칼빈은 시민군이 사용했기에 나머지는 시민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

\* 시민끼리의 오인 사격으로 추정.

\*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

“1985. 10. 16. 국무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는 민간인 사망자가 총 166명(M16 29명, CAR 37명, 기타(총상) 67명, 타박상 15명, 교통사고 8명, 자상 8명, 미상 2명)으로 보고됐다.”

\* 5·18기념재단의 ‘희생자 지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165명 가운데 M16 100명, 카빈 27명, 타박사(곤봉, 개머리판 등에 의한) 14명, 차량사 13명, 자상(대검 등에 의한) 6명, 기타 총상 2명.

참조) 군인의 전사 일자

\* 조갑제

“이들 23명의 전사일자를 보면 1980년 5월 20일에 1명, 21일에 3명, 22일에 3명, 23일에 1명, 24일에 11명, 25일에 1명, 27일에 2명, 28일에 1명이다.”

\* 위원회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 중 총 23명이 사망했다. 일자별 사망자를 분류하면, 5. 20 1명, 5. 21 3명, 5. 22 2명, 5. 23. 1명, 5. 24. 13명, 5. 27. 2명, 5. 28 1명이었다. 이들 중 광주시민들의 총격이나 공격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8명(차량사고 3명, 5. 22 2명, 5. 23 1명, 5. 27 2명)이었고, 오인사격 13명, 오발사고 1명 등이었다.”

2) 지만원은 검시 결과를 인용하여 총탄으로 사망한 시민 대부분은 공수부대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

“광주사태 10일 동안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입니다. ... 이들 주검들의 대부분은 공수부대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6명의 사망자 중 총상 사망자가 1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모두 여러 차례 세어보니 그 중 69%에 해당하는 80명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에 의해 사망했고, 36명만이 계엄군이 소지한 M16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1982년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 141쪽 상단에는 총상 사망자 수가 117명, 이중 75%인 88명이 무기고에서 나온 총들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 “이런 탄흔 분석은 5·18 당시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총집합하여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1995년에 내놓은 사망 원인에 대한 자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광주 사람들은 ‘M16에 맞아 사망했다’고 해야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미 뼈만 남은 15년 전의 시체를 놓고 아무런 조사 없이 다시 신고를 받아, 이를 통계 처리한 것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처사일 것입니다.”

\* M16에 의한 사망과 칼빈에 의한 사망 여부가 반복적으로 쟁점화. 학살 자체가 없었다는 주요 논법.

\* 위원회는 의사들이 난동자(폭도)로 분류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설명.

“당시 의사 2명과 목사는 난동자(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비폭도)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군에서는 M16 총탄을 맞은 경우 군에 저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폭도로 분류하려고 했으나 의사와 목사들이 반대했다. 처음 폭도로 분류된 것은 20여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하여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다.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망자는 5. 27. YWCA 안에서 사망한 고등학생이었다. 이 학생은 경기도 출신으로 그 안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군측에서는 계속 ‘폭도’라고 주장했고, 세 사람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폭도가 될 수 있느냐며 비폭도로 분류할 것을 주장해 결국 ‘비폭도’로 분류됐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사체 검안위원회 회의 결과 M16보다는 M1이나 카빈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 5·18단체에서는 신군부의 조작 의혹을 제기.

“특히 5. 18 사망자 GIS 지도 제작 과정에서 신군부가 5.18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분류하면서 계

업군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M16 사망자를 카빈이나 기타 총상 사망자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5.18 이후 이뤄진 사망자 검사에서 카빈이나 기타 총상 등으로 분류됐던 5.18 사망자의 사인이 사실 확인 결과 M16으로 변경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그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에 따르면 165명 중 23명의 사망원인이 수정됐는데, 그 가운데 카빈이나 기타 총상 등에서 M16으로 사인이 바뀐 경우가 13건이었다. 이는 사망자 검시 과정에서 총기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지만 신군부가 시민군간 교전에 위한 사망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계엄군이 사용하지 않았던 카빈에 의한 사망자 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5.18 민주화운동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은 "신군부가 M16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시민군 간 교전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 처럼 M16 사망자를 카빈으로 인한 사망자로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군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희생자에 대한 피해 현황을 발표하면서 사망 원인, 총상 구분, 사망 책임의 조작을 통해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양만 학살 행위를 은폐했던 것이다.”

\* 지만원은 특히 상징적으로 조천호(영정을 들고 있는 아이 사진의 주인공)의 아버지 조사천의 경우 시민군이 소지한 카빈 총탄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

3) 김대령은 시민군끼리의 총격전이 수많은 사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

“광주사태 기간 동안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가장 큰 원인은 시민군 총기 오발 사고와 시민군끼리의 총격전, 시민군 운전 미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등이었다.”

\* 김대령도 조사천의 사인이 칼빈 소총에 의한 것이며, 시민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

“조사천씨는 시민군 총, 즉 칼빈 소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것이 공식적인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5·18 묘역 묘지번호 36번 ‘창녕조공사천지묘’에는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

\* 「보안사 505부대 검시참여결과보고서」에서 조사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30. 조사천 5월21일 14:00 기독병원 사망 / CAR 좌전흉부 관통상 (1\*1 맹관) / 사망시간, 신분,

나이에 비추어. 2남 1녀의 가장, 노모 모신다.”

\* 5·18기념재단의 「당시 사망자 현황(검시자료 기준 사망자 165명)」에서 조사천의 사인을 CAR로 표시.

\*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자 전수 조사가 필요.

\* 5·18 당시 검시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의 증언을 확보해야 할 것.

참조)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 1980□(돌베개, 1990)에서는 사망자를 총235명으로 파악. 그 가운데 165명의 자료는 광주지검, 「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을 인용. 나머지 사망자는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편, □광주민중항쟁비망록□; 평민당, 「피해자 신고서」; 계엄사, 「광주사태 사망자 명단」(1980); 광주시 국정감사 제출 자료, 「5.18관련자 치료비 지원금 내역」(198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 II□를 인용.

## 2. 5·18의 발단

\* 지만원은 전남대 시위 대학생은 남한의 대학생이 아니라고 주장. 대학생과 지식인은 모두 숨어 있었다는 논법.

“1995년 7월 18일에 검찰 및 군검찰이 공동으로 내놓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에 의하면 5월 18일 아침 9:30분경, 20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의 ‘대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정문에 정렬해 있는 계엄군을 향해 책가방에 준비해온 돌맹이를 던져 계엄군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는데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감히 대학생이 200명씩이나 몰려다닐 수 있는 것인지, 멀리 있는 경찰만 보아도 도망갈 대학생들이 감히 공수부대원들을 찾아가 돌을 던져 얼굴에 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런 행위들을 남한의 대학생들이 그 서슬 퍼렇던 공포의 분위기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인지 사리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시각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 이런 배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검찰 보고서에는 그냥 ‘대학생들’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이들이 광주의 대학생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리판단입니다. ... 이른바 ‘5·18영웅들’, 이들의 한결

같은 증언들에 의하면 광주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은 ‘항쟁 10일 내내’ 모두 숨어 있었고, 운동권은 잡혀 갔거나 더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는 것이, 한국의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 김대령은 유언비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

“광주사태의 발단 자체가 거짓 프로파간다였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박관현이 죽었다고 외쳤다. 이것이 광주사태라고 명명된 5.18 사건을 야기한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거짓 소문이 광주시내로 쭉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없었다.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악성 유언비어에 휩쓸린 군중이 과출소로 달려가서 화염병을 던지며 방화하고 경찰을 인질로 납치하였다. 이것이 5.18 재판에서 헌정질서 수호 행위로 판단한 사건이다.”

\* 대학생, 지식인이 5·18에 불참했는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재검토해야 할 것.

\* 안종철은 계엄사령부의 지시로 505보안대에서 예비검속 대상자들(전남대 12명, 조선대 10명)에 대한 검거를 시도해 12명을 검거하고 10여 명은 체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시.

“대학 운동권 학생 지도부들은 검거 열풍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하로 숨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학생들은 검거되지도 않았고 검거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소수의 대학생이 계엄군에 체포될까 두려워서 집에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광주의 대학생들 ‘모두’는 항쟁기간 내내 숨어 있지 않았다.”

\* 대학생과 청년,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21일까지 ‘들불야학’, 극단 광대, 전남대 「대학의 소리」 팀 등이 관제언론의 침묵에 대항하여 투쟁 상황과 향후 투쟁 방침을 아리는 몇 가지 유인물들을 발간하고 있었지만 그 한계가 명백하였다. … 분산된 홍보활동의 통합을 추진한 것은 윤상원씨였다. 그는 ‘지금 모든 시민에게 올바른 행동 방침을 전달할 신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여 유인물 발간팀을 하나로 모아 「투사회보」 팀을 만들었다. 문안 작성은 윤상원, 전영호, 필경 작업은 박용준, 등사는 김명섭, 나명관, 윤순호, 물품 보급은 김경국씨가 맡았으며 배포 작업은 주로 들불야학의 여성노동자들이 담당했다.”

“23일의 제1차 쉼기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투쟁 열기를 확인한 청년, 학생들은 YWCA에 모여

이날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시외곽으로 피신했던 정상용, 이양현 등도 계엄군의 봉쇄선을 뚫고 광주로 귀환하여 여기에 합류했다.”

\* 유언비어는 존재했음. 이는 모든 대중 봉기의 특징. 유언비어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

### 3.5월 20일 밤 차량 사고

\* 조감제

“이 사고로 함평 경찰서 소속 정춘길 경장, 강정용 순경, 이세홍 순경, 박기웅 순경 등 네 명이 숨졌고 김대민 순경 등 네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버스를 몬 운전사 김갑진, 배용주씨 등 2명은 그 뒤 경찰에 구속, 복역하다 석방됐다. 이들은 군중들이 버스를 탈취, 몰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몰고 가다가 연기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차를 세웠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 조감제의 서술은 사실 확인 필요.

\* 위원회 (자세한 사실관계가 없음)

“시위대는 이날 밤늦도록 광주 시내 곳곳에서 공수부대와 충돌했으며, 전남도청 옆 노동청 앞에서 시위진압 중이던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 아래 서술도 사실 확인 필요.

“[20일] 밤이 깊어 가자 시민들은 군경의 거점인 역전파출소, 학동파출소, 광주시청, MBC, KBS 방송국, 서부경찰서 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차량에 불을 질러 바리케이드에 돌진하는 등 더욱 치열한 공세를 벌였다. 이런 와중에 노동청 앞에서 경찰관 4명이 희생되었다. 시민들의 차량이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다가 최루탄에 시야가 가려 경찰 대오를 뚫친 것이다. 물론 이 차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공수부대에게 무참한 보복을 당했다.”

#### 4.5월 21일 집단 발포

##### \* 위원회

“군의 발포가 시작된 13:00 전후의 도청 앞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00 직전에 시위대에서 시위진압에 지원 나왔던 기갑학교 소속 장갑차 한 대에 화염병을 던지자, 불이 붙은 이 장갑차는 뒤로 후진했다. 동시에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했다. 저지선이 붕괴된 계엄군은 도청 분수대 뒤와 도로 주변으로 피신했으며, 그 과정에서 11공수여단 63대대 8지역대 소속 무전병 권용운 일병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다. 장갑차가 잠시 멈춘 다음 분수대를 돌아나갈 때 장갑차에 사격을 했고, 뒤따라오던 버스가 돌진하자 10여명의 공수부대원이 버스에 사격을 가해 운전사가 사망하면서 분수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량과 시위대가 도청 쪽으로 몰려들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분수대 앞에 공수부대원들의 집중사격이 이루어졌다. 시위대가 뒤로 피신하기 시작하였고, 공수부대원들은 도청 광장을 장악했다. 금남로에 산발적으로 시위대가 나오면 공수부대원들이 조준사격을 했다. 심지어는 부상자 등을 부축하기 위해 나오던 시위대에게도 사격을 가했다. 11공수여단 61대대, 63대대는 상무관 쪽으로, 62대대는 수협 쪽으로, 7공수여단 35대대는 도청 쪽으로 집결했다. 이렇게 부대를 정비한 후 주변 건물로 저격 요원들을 배치하여, 시위 주동자나 돌진하는 차량에 사격을 가했다. 계엄군 측 장갑차도 금남로 쪽과 노동청 쪽으로 배치되어 일부 사격을 했다.”

##### \* 조감제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는 - 인용자] 공수부대가 누군가로부터 사격명령을 받고 탄창을 M-16 소총에 끼운 후 무릎짜 자세를 취한 다음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하여 아무런 경고 없이 일제히 사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 전남도청 앞에서는 그런 사격도 그런 사격 명령을 내린 장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정밀하게 조사했던 1995년의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부도 ‘사격 명령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부대의 발포는 ‘시위대가 탈퇴한 장갑차를 몰고 군인들을 향하여 돌진해 공수부대원을 깔아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자위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도 공수부대 중대장들에게만 15발씩 실탄이 지급되고 일반 사병들에게는 실탄이 거의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1일 정오 무렵 전남도청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수백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장면은 악랄한 공상이고 조작이다. 그런 학살도, 그런 사격 명령도 없었다. 시민들이 차량을 탈취하여 공수부대원들을 덮쳤고, 현장에서 군인 한 명이 깔려 숨지자 실탄을 갖고 있던 장교들이 차량을 향하여 발포한 것이 본격적인 총격전의 시작이었다.”

\* 조갑제는 11여단 한 대대장의 증언. “오후에 발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도청 근처의 빌딩 위에 공수부대원들이 올라가 아래를 향해 사격을 한 것도 엄호용이었다. 그 때 수십 만 군중을 향해 본격적으로 쏘았다면 그 정도만 죽었겠는가. 21일 오후에 공수부대는 일부 대대에서 경계용 실탄으로 대처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전투용 실탄을 공급받은 것은 광주에서 철수한 뒤인 22일이었다.”

## 5. 시민군의 무장 시점과 선제 발포

\* 김영택

“어젯밤[20일-인용자]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어느 때보다 이른 시각인 아침 8시쯤 도청광장 앞 금남로1가에서부터 금남로 3가 가톨릭센터 앞까지 이미 1만여 명을 넘어섰고 오전 10시쯤에는 5만여 명으로 불어나 6차선 큰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들 맨 앞줄 1, 2명이 카빈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 김영택은 20일 광주세무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17정 중 경찰에 회수되지 않은 일부일 것이라고 주장. 여기에 실탄은 없었음.

\* 김대령은 김영택을 인용해 시민군의 선제 발포를 주장.

“21일 오후 1시경 울린 최초의 총성의 진실은 시민군 선제 발포였다. 시민군과 계엄군과 기자 등 총격전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이들은 한결 같이 시민군 총에서 울리 총성이었다고 증언한다. 도청 광장에서 총성이 울리기 전에 시민군 점령 지역 지원동 쪽에서 먼저 총성이 울렸다. 그 첫 발의 총성은 그날 오전 화순에서 무기를 탈취해온 시민군이 쏜 총성이었다. ... 김영택 동아일보 광주주재 기자는 1988년 광주청문회 때 시민군 총성이 먼저 울렸다고 증언하였(다).”

\* 김영택의 서술은 다름.

“5월 21일 [1시 정각 애국가가 울리며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하기 직전인] 12시 58분에 일부 시위대원들이 관광버스 2대를 몰고 공수부대가 장악한 도청광장에 진입하여 공수부대가 즉각 사격을 가해 운전기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와 동시에 다른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이 총성을 두고 공수부대 측과 항쟁주체 간에 서로 상대방의 발포라고 주장하는 논란이 있었다 … 그러나 제2사령부나 계엄사령부의 상황일지는 21일 15시 50분 이후에야 시위대의 무기 탈취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계엄사령부 상황일지, 1980년 5월 21일자)는 사실에서 시위대의 발포는 없었음이 분명하다.”

\* 위원회는 21일 13시 집단 발포 이전에 발생한 총기 피탈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서술.

“광주에서 최초로 총기가 피탈된 것은 5. 21. 03:00였다. 시위대는 광주세무서를 방화하고 직장 무기고에서 카빈 50정 중에서 17정을 가져갔으나, 실탄은 없었다. 08:00 나주군 반남지서에서 카빈 3정과 실탄 270발이 탈취되었으며, 09:00경 나주군 남평지서에서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20사단 60연대는 07:30경 광주로 진입하다가 시위대에 차량 14대, M60 기관총 3정, 무전기 10대 이상 등을 빼앗겼다.”

참조) 광주에서 최초 발포는 5월 19일에 발생

“광주에서 최초의 발포는 5. 19.에 있었다. 5. 19. 16:50 광주시 계림동 광주고와 계림파출소 사이에서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멈춰선 장갑차를 시위대가 공격하자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 차○○ 대위가 M16을 발포했고, 당시 조대부고 3학년인 김영찬이 유탄에 총상을 입었다. 5. 20. 01:00 보안사는 현지 505보안부대로부터 ‘5. 19 고교생 1명(인적사항 미상)이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전남의대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참조) 5월 20일에도 발포 있었음

“5. 20. 밤에도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었다. 5. 20. 21:50 광주역에서 경계중인 제3공수여단 16대대 정관철 중사가 시위대의 차량에 깔려 사망하자 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각 대대에 M-16 실탄을 배부하고 장착토록 지시했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중대 소속 하사 이○○는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본부중대 병력들이 3공수여단 작전 참모와 작전과 선임하사의 지휘 아래 지프와 트럭에 실

탄을 싣고 전남대에서 광주역으로 지원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지원병력을 막아선 시위대를 향해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또 제3공수여단이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505보안부대는 “광주소요사태 33보. 02:20 3여단 병력이 전대로 복귀를 위해 탈출 시도, 앞을 가로막는 데모대를 돌파하기 위해 방망이 구타. 사망 2명, 중상 2명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5. 21. 04:40의 보고에는 사망자 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1명으로 정정됐다. 광주역 앞에서 사망한 2명의 시신은 5. 21. 새벽 시민들에 의해 트럭에 실렸다가 중간에 리어카에 옮겨져 전남도청 앞으로 이동했다.”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은 최초 발포를 20일 밤 11시경으로 파악.

“시민들의 파상 공세가 한층 강화된 밤 11시경 갑자기 M16 총성이 어둠을 찢었다. 시민들은 놀라 흩어졌다. ... 시위대는 대오를 정비하고 다시 신역을 향해 전진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총성이 울리면서 맨 앞 대열의 시민들이 쓰러졌다. 이것이 최초의 발포였다. 3여단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면서 시내 각지에서 작전 중이던 11, 13, 본부대대를 신역으로 불러들였다.”

## 6. 시민군의 기관총 사격

\* 조갑제

“5월 21일 오후 전남의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서 LMG2정을 설치하고 전남도청과 군헬기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

\* 황석영

“계엄군 임시 본부인 전남 도청이 사정거리 안에 포착되는 병원 12층 옥상 위에 시민군들은 기관총 2정을 나란히 설치했다. ... 그들은 도청을 향해 맹렬히 사격하기 시작했다. 두 정 의 LMG 기관총이 예광탄을 날리며 울부짖었다. 도청에는 기관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도청의 계엄군 본부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

\* 김영택

“기관총의 가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군이 적중률이 낮은 장난감 같은 M1이나 카빈소

총으로 무장한 것과는 달리 중장비인 자동화기로 무장함으로써 도청 옥상에 있는 공수부대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게릴라로 변신한 시민군과 본격적인 총격전 또는 시가전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질 총격전은 시민의 피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곳에 기관총이 설치된 후 공수부대가 금방 철수한 탓도 있었지만 시민군은 이 기관총을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다.”

## 7. 시가전과 도청 점령

\* 황석영은 치열한 교전에 의한 ‘승리’로 서술.

“5시 30분, 계엄군의 총퇴각이 결정되었다. 그들의 퇴각은 허둥지둥한 패잔병의 도주였다. ... 계엄군은 소속 부대별로 조선대 쪽을 향해 퇴각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어둠을 이용하여 외곽도로로 전 부대가 빠져나갔다. ... 조선대와 전남대에 남아 있던 병력들도 어두워지자마자 모두 퇴각했고 그들을 뒤쫓는 시민군들의 추격도 계속되었다.”

\* 카치아피카스는 치열한 교전을 묘사하고, 시민군의 격렬한 총격으로 시민군이 도청에서 후퇴했다고 주장.

“최초의 무장 그룹들은 카빈총이나 M1 소총으로 반격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그들의 뒤를 따랐다. 무장한 투사들이 쓰러지면 다른 누군가가 무기를 집어들고 계속 공격했다.”

“군은 거리를 통제하기 위해 기관총을 장착한 헬리콥터를 사용했고, 그중 최소 1대가 격추됐다. ... 대략 4시 15분경 빼앗은 기관총을 가져와 도청(아직 군대가 장악하고 있던)을 향해 배치했다. 전남대 병원과 전일빌딩 옥상 위에 있던 투사들의 격렬한 총격으로, 도청에서 군대의 위치는 불안해졌다. 헬리콥터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61연대 지휘관은 도청 주변 저격수들의 사격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항이 너무 격렬해서 군대는 도시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 안종철은 시민군이 8시경 뒤늦게 철수 사실을 알고 도청을 접수했다고 서술.

“계엄군이 조선대 뒷산으로 철수하였다는 것을 시민군들은 한참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볼 때 시민군이 얼마나 긴급히 급조되었고 시민군 상호간에 통신수단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이들이 당시의 상황을 즉자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계엄군의 동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엄군을 물리치겠다는 대의명분만 대단히 높은 상태였다.”

\* 김영택은 시가전이나 교전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고 주장.

“시가전이나 교전이라기보다는 목표지점도 없는 대응 발사였다.”

“시위대쪽의 특공대가 일방적으로 공수부대에게 당하고 물러나는 모습이지, 치열한 총격전이나 교전으로 볼 수는 없다. 교전이나 총격전은 엇비슷한 전열을 갖추고 전투를 벌이거나 게릴라식 무력저항을 말한다.”

\* 헬기 사격과 대응 사격에 관해서도 사실 확인 필요.

## 8.5월 21일 아세아자동차공장 습격

\* 지만원은 5월 21일 20사단 기습하고 아시아자동차 공장 습격한 후 무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 동일한 600명이라고 주장.

“1995년에 내놓은 검찰 및 군검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5월 21일 오전 8시, 시위대 300여 명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매복해 있다가 극비리에 이동하는 20사단 사령부를 기습하여 사단장 차를 포함한 지휘차량 14대를 빼앗아, 방위산업 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20사단 사단장 차를 보아라’ 하면서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감히 어느 한국인이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한국인이 극비 중 극비로 취급되는 사단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아내 가지고 공격하기 가장 좋은 톨게이트라는 장소에서 매복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한국인이 감히 막강한 정규사단 사령부를 막대기 정도를 들고 기습할 능력과 배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런 능력자들이 어떻게 300명씩이나 될 수 있는 것인지, 사리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침 9시경에는 또 다른 3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가서 먼저 도착한 톨게이트 돌격대 30여 명과 합세하였습니다. 모두 600여 명이 집결된 것입니다. 먼저 4대의 장갑차를 빼앗아 몰고 나갔습니다. 370여 대의 군용 트럭을 탈취해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해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각기 질주하였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도 이렇게 조직적이고 빈틈

이 없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과 4시간 만에 2개 연대를 무장할 수 있는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총에 맞아 사망한 광주인의 70%가 이 무기고들에서 꺼낸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 위원회 (자세한 서술 없음)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공수부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운전경력이 있는 시민들이 자원하고 나섰다. 시위대의 일부가 이들을 앞세우고 아세아자동차 공장으로 몰려갔다. 아세아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무저항’으로 완성품 장갑차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내주었고 일부는 시위대에 합류했다. 시민들은 이 차량을 타고 광주 번두리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태우고 중심가로 향했다.”

\* 최초 버스 7대, 항쟁 기간 동안 총 완제품 360대 징발

“청년들 중에 운전 기술이 있는 자가 7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들은 버스 7대를 공장에서 몰고 금남로로 되돌아왔다. 시민들은 차를 보고 함성을 질렀다. 더 많은 차량이 아세아자동차 공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시민들은 청년들이 몰아 온 버스에 다시 가득가득 타고 공장으로 몰려갔다. 그때는 공장을 지키는 직원이나 경비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시위대는 항쟁기간을 통해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군 APC장갑차 3대를 포함한 360여 대의 모든 차량을 징발, 운행했다. 금남로의 첫 번 징발에서는 대형 버스 22대, 장갑차 3대, 군용 트럭 33대, 민간 트럭 20대, 모두 80여 대를 끌고 나왔다.”

\* 카치아피카스는 박태봉(아시아자동차 노조조직가)의 증언을 인용.

“공장으로 돌아온 그는 집회에서 온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목격했다. 노동자들은 기꺼이 동의했고, 최소 20대의 차량이 제공됐다. 시위대는 일부 차량을 몰고 떠났고 나머지는 나중에 돌려줬다. 그 뒤 며칠 동안 시위대는 새 버스, 지프, 최소 1대의 2.5톤 트럭, 병력수송장갑차 등을 제공받았다. 최소 414대의 새 군용차량이 봉기대의 손에 있었다. (5월 21일 이후 경비와 경영진을 제외한 1,700명의 공장 노동자들은 생산을 중단했다.)”

\* 차량이 260여대라는 서술도 있음.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시위자들이 가져간 차량 대수만 해도 260여 대에 달했다.”

### 9.5월 21일 광주 교도소 습격

\* 조갑제는 3여단 대대장의 증언을 인용.

“21일 오전 우리는 전남대학교 안에 있다가 광주 교도소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여단 병력이 오후에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즉시 교도소 외곽에 호를 파고 대치했다. 그날 오후에 무장 시위대의 습격이 몇 차례 있었고 우리는 응사했다. 우리 여단이 배치될 때 그쪽이 선제 사격을 가해 한 사병이 먼저 다쳤다. 전우가 쓰러지면 사격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전투가 시작되는 법이다.”

\* 지만원

“북한 특수군 600명은 5월 21일 오후별 22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광주교도소 공격에 나섰습니다. 좌익수 170명을 포함한 2,700여 명의 수용자들을 폭동에 동원하려고 6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한 겁니다. ... 교도소 공격에서 패하자 이들은 26일, 마지막으로 도청에 있었던 일부 20대 부나비들에게 결사항전을 선동하고 사라졌습니다.”

\* 김대령

“시민군의 본래의 군사작전은 오후 1시경에 교도소 죄수들을 석방시키고 3시에 도청을 탈환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교도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들을 시민이라 부르든 시민군이라 부르든 도대체 100명이 넘는 무장단체가 서너 대의 군용트럭에 분승하여 교도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초로 교도소 습격을 시도했던 이 시민군 부대에서 구호를 선창했던 시민군이 지휘관이다. 이들은 누구였는가?”

\* 김영택은 「12. 12, 5. 18 고소고발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7차에 걸친 교도소 습격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습격을 기도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

“광주교도소는 ... 광주-담양, 곡성, 순천 쪽으로 빠지는 국도와 서울-순천 간 고속도로가 측면과

후면으로 통과하는데다 이 고속도로에 광주 동부 인터체인지가 교도소 정문 앞을 거쳐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앞, 뒤, 옆으로 뻗어 있는 도로들이 교도소 옥상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당시 시위대원들이 무장 이전부터 도내 확산 또는 광주 소식 전달차 각종 차량을 이용해 담양, 곡성, 순천 방향으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21일 오후에는 무기 탈취를 위해, 그 이후에는 도내 확산을 위해 빈번하게 들락거렸던 것이다. 광주교도소를 통과하기 위해 달려가는 시위대나 선량한 민간인을 부지기수로 공격해 놓고 ‘교도소 습격 기도’를 격파했다는 전파로 왜곡해서 계엄사령부나 보안사령부에 보고했으며 계엄사령부는 이를 국민과 언론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폭도’들의 소행으로 과장해 발표했을 개연성이 높다.”

## 10. 도청 지하실 폭약

\* 지만원

“가장 괄목할 만한 상황은 이들 600명의 학생 부대가 8톤 분량의 TNT를 전남도청 지하실에 옮겨놓고 순식간에 포탄으로 조립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조립 및 해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당시 전라도 계엄분소 전체에 오직 한 사람 5급 문관인 배승일 뿐이었습니다. 현역 군인들에게는 장교든 병사든 이런 능력 없습니다. 5월 26일부터 구성된 ‘항쟁본부’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들 스스로 증언하였습니다. 광주 사람들 중에는 장갑차 4대를 몰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예비군들과 대학생들은 모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8톤 분량의 TNT와 뇌관과 40km 길이의 도화선을 탈취할 생각을 감히 누가 하였던 것이며, 그것을 단시간에 폭탄으로 조립하여 전남도청에 쌓아 놓고 여차하면 광주시를 히로시마처럼 잿더미로 날릴 생각을 누가 감히 하였겠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능력 광주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 양홍범(20세, 권투선수)의 증언.

“나를 포함한 문영동, 김영복, 박선재, 이00(인천에서 온 대학생) 등 5명이었다. 모두들 끝까지 안전하게 폭약을 지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 한번은 문영동씨가 밖을 나갔다 왔다고 했다. 처음에 나는 그가 무엇 때문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문영동씨는 우리가 보관해두었던 다이어마이트 뇌관을 6백-7백여 개를 갖고 상무대로 갔다고 했다. 상무대에서 준장까지 만나서 뇌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폭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폭약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 5월 25일경 문영동씨의 지원 요청을 받은 상무대에서는 문관 한 명을 폭약담당반으로 보내왔다. 지하실에는 상당량의 TNT 뇌관이 있었는데, 25일 하루 동안 나를 제외한 4명은 문관과 함께 뇌관 분리를 했다. 5월 26일 역시 나는 수문장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고, 나의 동료들은 문관과 함께 뇌관 분리를 계속하고 있었다. ... 5월 26일 뇌관 분리 작업이 대강 마무리되고 밤이 되어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위험하다는 소식만 전해졌다.”

\* 정상용(30세, 회사원)의 증언

“시간을 벌기 위해 장례식을 선택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극히 순진하고 어리석은 발상이었지만 최소한 장례식까지는 기다려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던 것이다. 우리 계획은 28일 합동장례를 치른 후에도 시체들은 계속 모여들 테니 날마다 장례를 하면서 시민을 모으고 그 사이 재무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계엄군과 우리가 싸움을 하면 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밤만 버티면 낮에는 시민들이 합세를 해줄 것이고 저놈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 전체를 다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는 한, 도청 안에는 엄청난 양의 TNT가 있으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는 이미 폭약 전문가에 의해 뇌관이 제거된 후였다. ...”

## 11.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 지만원은 5.18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유네스코 자료들을 인용.

“그 자료들은 저로 하여금 5.18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마지막 결론을 얻게 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5.18의 핵심 주범이라며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위를 조직했거나 참가한 사람이 일체 없습니다. 5.18의 주역을 중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계엄군이 포기한 전남도청에 5월 22일 이후 들어온 호기심 많았던 20대의 막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에는 대학생 시위대도 없었고, 노동자 시위대도 없었습니다.” “민중화 판사들은 1996-97년 판결문에서 ‘광주 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내린 최종 결론으로는 광주인들 중에 이런 시위대든 저런 시위대든 시위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학생들로 위장한 600여 명의 북한 특수군이 최초 4일

918-21일) 작전의 주동군이었습니다.”

“광주 유지들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무기를 회수하여 계엄군에 반납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은 시위 기간이 아니라 항복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광주의 대학생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기회수와 반납이 대세를 이루자 이들 600명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력시위를 하면서 자기들을 믿고 다시 싸우자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항쟁본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인 이 그룹은 불과 80명 정도로 구성된 콩가루 집합체였으며, 주로 중·고교생들과 막노동자들로 구성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의 홈페이지에 ‘광주사태 타임라인’이 게시돼 있습니다. 광주사태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일지 중 5월 22일, 15:08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서 대학생 5백여 명이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북한특수군 600명에 대한 이슈가 2013년 초부터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에 코너에 몰린 5.18기념재단이 2013년 7월 14일경, 기록을 슬그머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위도중 연행된 시민, 학생 등 800여 명이 석방되어 도청 도착’이라고 변조시킨 것입니다. 5월 21일 도청을 접수한 세력이 바로 이 연·고대생 600명이었으며, 광주 도청 앞에서는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5월 22일, 이들 북한특수군을 서울서 온 대학생 또는 연·고대생으로 부르며 광주시의 이름으로 환영식을 거행해주었습니다. 당시의 계엄 하에 연·고대생 600명이 구성되어 광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 지만원의 최근의 게시물 참조.

[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3421](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3421)

\* 김대령

① “시민군 중 광주시민들은 극히 적었으며 시민군 대부분은 외지인들이었다. 시민군 주력부대는 5월 21일 갑자기 광주로 들어왔다가 26일 갑자기 광주를 떠난 무장세력이었는데, 이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며 21일 전북 담양을 경유하여 광주로 들어온 수백 명의 시민군이 광주시민들이긴커녕 대한민국 국민인지조차 우리는 모른다. 광주사태 주동자들이 외부 지원세력이라 불렀던 이 수백 명의 시민군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② “둘째 부류의 시민군은 광주시민이 아닌 자들이 시민군 차를 몰고 다니며 시골에서 시민군

의 차에 태워 데리고 다녔던 청년 혹은 청소년들이었다. 그래서 나주, 영암, 영산포, 해남, 진도, 완도 등에서 시민군의 차에 실려 동원된 시민군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주로 고등학생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광주시민이란 말인가? 그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③ “셋째 부류의 시민군은 광주 거주자로서 시민군이 되었던 자들인데, 그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생들이거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어린이를 시민이라 부르지 않으며, 미성년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정체불명의 무장단체가 무기를 탈취해 와서 무기분배를 하였을 때 광주시민들은 받기는커녕 피난을 가거나 대문을 꼭꼭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무기를 주면 덱석 받는 연령층은 주로 중학생 연령층이었다. 그래서 광주 거주자들로서 시민군이었던 자들은 대부분 중고생들이었거나 학교에 다니지 못한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5. 18재판 원심 법관들은 시민군 조직을 국민이 주권행사를 한 헌법기관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 참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주권행사를 한다는 말인가? 중학생들이 총을 들면 참정권이 저절로 생기며, 그들의 무장봉기는 주권행사이며, 그들의 조직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법리가 있는가?”

\* 김대령은 300명 단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자유북한군인연합에 따르면] 광주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600명이었으며 선봉부대는 2군단 정찰대대 300여 명이었다. 나머지 300여 명은 인민군 각 군단, 저격여단 등에서 차출한 정예병력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00명씩 두 무리의 북한군이 모두 남한에 침투하였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지의 사실은 미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장 시민군 수도 300명씩 두 무리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 김대령은 김영택을 인용해 서울에서 온 500명의 대학생에 의문을 제기.

“오후 3시 8분에는 서울에서 500명의 대학생들이 도청 광장에 있다고 해서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크게 벌어졌다. … 그러나 이들이 과연 진짜 대학생들이었는지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광주 외곽은 이미 20사단 병력까지 동원되어 철옹성 같이 봉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50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광주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김영택 기자는 500여 명의 가짜 대학생들에 대한 의문을 평생 품고 가야 했다. 가짜 대학생 500여 명이 어떻게 22일 광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는 오랫동안의 의문이었는데, 이제 그 의문이 풀렸다. 그들은 광주 외곽

이 봉쇄되기 전에 광주로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그 전날 21일 오전 9시에 갑자기 등장하여 전라도 일대 38개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바로 그 300여 명 더하기 300여 명=600명의 시민군이었던 것이다.”

\* 그러나 김영택은 오히려 군부의 정보요원이나 프락치의 가능성을 제기.

“그런데 500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연고대생 1,600여 명이 논산을 출발한 후 장성까지 왔다가 저지돼, 겨우 연대생 30여 명만이 광주에 들어왔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다. 이 30명이 들어온 것도 의문인데 어떻게 5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 때문에 이들이 시위를 하기 위한 대학생이 아니라 계엄사령부 또는 그 예하 군 기관에서 보낸 정보요원이나 프락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있었다.”

\* 김영택은 복면부대도 의심.

“군과 경찰이 철수해 표면상 감시자고 없는 민중 자치시대가 된 22일 오후부터 복면부대가 등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저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문이다. 차량 위에서 그들이 벌이는 시위는 과격했을 뿐만 아니라 선동적이었다. ... 그리고 이들은 수습 대책회의나 시민대회에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채 대부분 차량을 타고 다니며 강경한 구호를 외쳐대거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강경파들이었다.” “[5월 31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광주사태의 전모’를 보면] 이것은 계엄사령부가 정보요원 또는 공작요원을 대량으로 투입했음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대목이다. 군이나 경찰이 상황판단 또는 재진압작전을 위해 정보요원을 대거 투입했으리라는 짐작이 쉽게 간다. 그리고 요원들이 자기의 얼굴과 신분의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복면을 했을 가능성은 많다.”

\* 전두환은 북한군 논의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

정호용: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요. 지만원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어디로 왔는데?

정호용: 5·18 때 광주로, 그래서 북한군들하고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봉기해서 잡았다는 거지.

전두환: 오...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 12. 기타

### 1) 윤상원 사인

\* 지만원은 도청에서 불에 타 사망했다고 서술.

\* 위원회

“1980.에 작성된 광주지검 검시조서에는 총 11명의 자상 사망자들이 있었다. 5. 23. 발생한 지원동 총격사건(‘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의 사망자 중 2명의 젊은 여성은 총상 외에도 자상이 있었다. 한 명은 좌유방부에, 다른 한 명은 좌취부에 자상이 있었다. 계엄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대부분이 사망하고, 홍금숙씨와 2명의 부상자가 부대 주둔지인 헬기장 근처로 이송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들은 사망 이후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27. 전남도청에서 사망한 윤개원씨(항쟁 지도부 대변인 윤상원의 본명)의 경우도 3도 화상이 끝난 후 하-상 방향의 우하복부 자상이 사인이었다.”